


평생교육,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걸음입니다.

|   |   |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|---|--|----------|----------|
|  | <b>보도자료</b><br><b>Press</b><br><b>Release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8. 12. 1(토)<br>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|   | 교육지원부장   | 홍숙희      | 726-9870 |
|   |   | 중국어체험학습관<br>운영팀장   | 김이경      | 755-9512 |
|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<br>www.jiles.or.kr   | 동영상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사진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| 후속자료: 없음 |          |

## 중국어체험학습관, 제4회 중국어말하기경연대회 성황리에 개최

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제주대학교상무공자학원이 공동 주관한 ‘중국어체험학습관 제4회 중국어말하기경연대회’가 지난 12월 1일 성황리에 열렸다.
-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도민 21명이 평소 닦아온 중국어 기량을 유감없이 뽐내 함께 자리한 청중 120여 명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.
- 영예의 대상은 ‘나는 학원에 안 간다’를 발표한 손서연 양(삼양초 6년), 최우수상은 윤예솔 씨에게 돌아갔다. 대회 최연소 참가자는 한유란 양(9세, 동홍초), 최고령 참가자는 김쌍희 씨(73세)였으며, 10대 이하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도민이 고르게

참여하여 감동과 의미를 더했다.

-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우시루(吴锡路) 주제주중국총영사관 부영사는 ‘각각의 사연이 있는 발표자들의 이야기에 많은 감동과 재미를 느꼈으며, 참가자 모두가 대회의 주인공이었다’는 심사평을 전했다.
- 올해 4회째를 맞는 중국어말하기대회는 매년 12월 초 도민 중국어 의사소통 역량 증진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중국 국적이 아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.
-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중국어말하기대회 외에도 매월 중국어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 중국어 입문과정을 수료한 도민이라면 레벨테스트를 거쳐 중국어체험학습관 교육과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학습관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국어체험학습관 홈페이지([www.jjctc.or.kr](http://www.jjctc.or.kr)) 및 전화(제주시 ☎ 064-755-9511, 서귀포시 ☎064-733-1080)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 1. 제주특별자치도중국어체험학습관 제4회 중국어말하기경연대회 관련 사진 2부 끝.

[붙임 1]

□ 제4회 중국어말하기대회 관련



《대상 수상자-손서연》

《전체 기념촬영》

